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년 4월 21일

오르티즈 후속 소식

저는 지금 막 다비드 오르티즈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미엘은 6개의 찢조각을 눈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2.0의 완벽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이와 같은 급속한 치유를 보고 '기적'이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미엘은 여전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고난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아리브(이스라엘 제2의 히브리어 신문)는 오르티즈 가족에 대해 세 면을 가득 채워 보도했는데, 꽤 공정하게 사건을 다뤘고 메시아닉 성도들을 공격하는 "반 선교사들 Anti-Missionaries"의 악의 섞인 거짓말들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폭탄을 설치한 자가 보안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의자와 이 계획을 방조한 모든 이들이 정의의 심판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미엘에게 일어난 폭탄 테러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전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아미엘의 상태에 관심을 표한 한 정통 유대인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JJ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비드는 신앙을 숨겨 오다가 아미엘의 소식을 듣고 담대히 증거하게 된 한 이스라엘 성도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박해 가운데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께서 찾으시는 바입니다(행 2:29, 계 12:10-11).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반응은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저희는 박해가 저희 모두에 대한 것임을 압니다. 공동체들은 신학적 배경에 대해 따지는 일 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박해는 저희를 하나로 묶고,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저희 간사들 다수가 지난 주 내무성에 맞서고 있는 12명의 메시아닉 성도들을 대표해 대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성도들이 민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이 소송을 이끌어

준 칼럼 마이어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승리요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현행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유대인이 종교를 바꾼 경우에 이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은 저희를 유대적 정체성 및 이민권을 버린 이들로 봅니다(물론 이것은 저희가 믿는 모든 것에 대치됩니다).

이번 소송은 두 가지 판례를 정립했습니다.

1. 유대인 성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2. 부친이 유대인이나 모친은 비유대인인 메시아닉 성도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두 번째 판례의 근거는 아이러니컬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친만이 자녀의 유대인 됨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친만 유대인인 성도는 유대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따라서 종교를 '바꾼' 적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직접적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은 준다는 겁니다.)

내무성은 옳지 못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해 왔는데, 이 새로운 판례가 이제 거기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메시아닉 성도들의 일반적 입지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불공정을 중단시켰으므로 중요한 승리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 전(前)에서는 어떠한 진일보도 저희에게는 큰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엑소더스Exodus(대탈출)

전세계의 유대 민족은 이번 주 유월절(페사흐)을 기념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세대의 모든 이들이 이집트를 직접 탈출해 온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슈아께서 변화산 위에 계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눅 9:31 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 때는 당신께서 이 땅으로부터 “출발”하실 때였습니다. 여기 “출발”을 이르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Ex는 출구exit를 가리키는 말과 같은 것이요 odus는 긴 여행odyssey을 이르는 말의 어원)입니다. 엑소더스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에 출애굽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히 11:22, 출 12-14).

예슈아의 엑소더스와 출애굽이라는 엑소더스 사이에는 영적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예슈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유월절 당일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그 날, 바로 그 시각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후 셋째 날, 동 트기 직전의 아침이었죠(요

20:1, 출 14:27).

하나님께서서는 홍해 횡단의 사건을 부활을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셨습니다. 부활 때, 예수아께서는 수천의 영혼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당신과 함께 하늘로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영혼들을 나타냅니다. 홍해를 건넌으로, 그들은 불기둥 가운데 천사(지상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아의 모습)에게 이끌리어 죽음을 떠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 날에, 같은 방법으로 의로운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침례(세례)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영적으로 재(再)제정하는 것입니다. 홍해 횡단은 동일한 사건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우리는 직접 그 사건에 참여하듯 물을 건너가야 합니다.

엑소더스가 메시아 초림의 형상(image)이었듯, 정복은 재림의 형상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예수아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예수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의 왕국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분 일곱 나팔과 연결됩니다- 계 11:13).

예수아께서는 출애굽 당시 천사로서 여호와와 구름 가운데 계셨습니다(출 3:2,4, 14:19,24). 또한 정복 때에는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수 5:13-15).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아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군대장관의 모습을 하신 예수아셨습니다. 대탈출(엑소더스)로부터 정복까지의 흐름은 십자가에서 재림까지의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변화산에서 예수아께 그 세대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분께서는 우리 세대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아의 초림은 모세 세대와 연관됩니다. 우리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와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세대로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여호수아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 “그 땅을 취할” 것, 이 세상의 거인들을 정복하고 예수아의 왕국을 세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Byunghyun Go